“개혁은 파종의 심정으로 해야”

자승 스님,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예방서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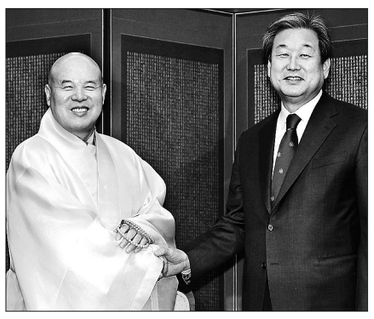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박근혜 정부가 신년부터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구조개혁에 동감을 표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1월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개혁은 10, 20년 앞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서 “장기 불황의 늪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 각 분야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부가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부담되는 사안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승 스님은 “개혁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개혁은 이어져야 한다.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사진= 노덕현 기자

이와 함께 신년을 맞아 정계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13일에는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예방했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회 정상화 위한 결의대회 열린다

열린 모임, 확대회의서 3월 16일 개최 결정

운영위원 15명 사퇴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와 열린비구니모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마지막 수단인 결의대회를 동안거 해제 이후로 개최키로 했고, 비구니회 집행부에 반대하는 운영위원들의 사퇴로 이어지고 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1월 12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확대회의를 열고 회칙 개정 특위 보고와 결의대회 준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비구니모임은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오는 3월 16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열기로 결의했다.

열린비구니모임 관계자는 “현 집행부의 문제 제기와 수 차례의 대화 시도가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현실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결의대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의 회칙 위반에 대한 항의하며 운영위원 스님들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회 혜욱 스님, 경남지회 중안 스님, 해득 스님, 서울지회 본각 스님 등 12명의 운영위원이 9일 전국비구니회에 운영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한 서울, 부산 지역 운영위원 일부 스님들도 사퇴서를 제출해 대략 15명의 운영위원 스님들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2015 교육아사리 신규 선발

교육원, 13일 진관 · 무애 · 정천 스님 등 6명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015년 신규 교육아사리로 진관 · 무애 · 정천 · 부용 · 여현 · 우석 스님 6명을 선발했다.

2015년 신규 교육아사리는 총 8명이 지원한 가운데 교육아사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1월 13일 교육원 교무회의와 교육원 회의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이번 신규 교육아사리는 비구 스님 3명(진관, 무애, 정천), 비구니 스님 3명(부용, 여현, 우석)이다.

이에 따라 종단에서 위촉한 교육아사리는 총 36명이다. 교수 아사리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아사리 포럼’,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해 불교적,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기자

대중공사·통일선언… 소통·화합 ‘역점’

신년 기자회견 키워드로 본 2015 조계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화합,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내놨다. 실제 4034자에 달하는 기자회견문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새해 종무 운영 캐치프라이즈도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해를 만들겠습니다’이다. 세부 중점 과제들도 운영 기조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통의 대중공사 될 수 있나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중점 사업은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대표적이다. 현재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된 100인 대중공사는 오는 1월 28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출범과 1차 회의를 함께 진행한다.

조계종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함께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대규모 논의의 장을 열고 이 안에서 문제점과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는 ‘사부대중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종단이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한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중공사 추진위는 출재가 위원을 10개조로 나눠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자승 스님은 “대중공사를 통해 모여진 의견은 장 · 단기 로드맵을 수립해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종도에게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풀어할 숙제도 적지 않다. 100인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위원 중 종단에 비판적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종책모임 삼화도량이나 재가자들은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토론회와 야단법석, 쇄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됐지만 이것이 종무행정에 도입되거나 입법화된 사안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총무원장, 호계원장, 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수좌 스님 등이 현장에서 똑같이 다 함께 참여해 토론하는 것은 불교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여기서 모아진 의견은 집행 당사자 스님들께 의견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의견 모아지기만 하면 입법기구 통해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 소통 · 화합 · 혁신 강조
대중공사 통한 종단 현안 논의
공생 골자로 한 통일선언 발표
조계사 일대 성역화 사업 ‘첫삽’
개정 승려복지 · 교구 발전 추진

통일선언 · 갈등 해결과 화합

조계종이 내놓은 중점 계획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통일선언’ 발표다. 광복 70년을 맞아 오는 5월로 발표가 예정된 ‘불교통일선언’은 현재 70% 정도 연구 · 작성이 이뤄진 상황이다.

자승 스님은 통일선언의 담론 골자는 ‘공존’, ‘상생’, ‘합심’을 꼽았다. 스님은 “공존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고, 상생은 한민족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합심은 언어와 문화 등에서 보이는 남북 간 이질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통일이 이뤄져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소통과 화합, 혁신을 강조했다.
사진= 노덕현 기자

올해 열리는 연등회와 함께 진행되는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자승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세계불교지도자들과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등 노동 현장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보여줬던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활동에도 많은 힘을 실을 전망이다. 또한 화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스님은 “오래전부터 종교계가 나서서 노력했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해고 노동자 우선 고용을 제안했다. 실무자와 논의를 진행하며 가능성을 타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복지 · 재무 · 선거와 혁신

혁신 분야에 포함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승 스님의 선거 공약과 관련이 많다. 대략 승려복지와 원장 선거제도 개편, 교구 균형발전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부지 매입 등이 추진되는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사업은 조계종을 일신할 수 있는 혁신 불사의 한축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오는 5월까지 10.27 법난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한다.

자승 스님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은 문화의 조화로움과 삶의 지혜로움이 공존하는 이 시대의 불교의 상징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전통문화의 가치가 시간과 공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승려복지법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1월부터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며,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오는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자승 스님의 주요 공약이었던 중앙 · 교구 균형발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분야별 의제 선정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제들을 바탕으로 ‘교구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분담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행 종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구조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신성민 기자

불교계, 의정부 화마 이재민에 ‘자비 손길’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
1월 12일 선발진 급파
의정부사암련 · 복지관들
구호물품 지원 잇달아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현장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1월 12일 오전 12시경 긴급 재단구호봉사단을 급파했다. 재단 측은 인근에 위치한 회룡사와 의정부시사암연합회, 재단 산하 복지관인 송산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지원활동에 동참한다.

현재 의정부 경의초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는 250여명의 이재민이 80동의 소형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사고를 우려해 텐트별로 전기장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재민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다.

재단측은 "의정부 현지조사 결과 급식과 식수, 숙소 등 긴급 품목은 지역자원 봉사센터와 구호단체, 시청을 통해 준비된 상황이었다"며 "이재민과 봉사자 급식지원을 위해 쌀과 밑반찬, 찜질방 이용을 위한 현금지원, 이불과 담요 같은 방한용품을 1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사암연합회에서는 1월 13일 쌀 3가마와 찜질방 이용을 위한 현금 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급식시설이 있는 송산노인복지관에서는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저녁식사 시 국 2백인분을 지원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작년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호남 4개교구본사 및 지역사암연합회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팽목항, 진도실내체육관 지원활동에 발 빠르게 동참한 바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에서는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0분 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으며 22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1월 12일 급파된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이 의정부 화재사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좌선하다가 깨달았다는 선승은 없다.
선문답을 통하여 깨달았다!!
—일상적인 언어로 간화선의 핵심 주제들을 분석하다.

고봉 원묘와 몽산 덕이는 정통 간화선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선은 고봉선, 몽산선이다.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悟道)
-화두, 모름(不會)에 대하여 분석하다-

■ 자명 眥明 지음 | 464쪽 | 25,000원 | 신국판 양장

자명 스님: 1958년 대구 출생. 1977년 경북고 졸업, 서울대학교 입학. 1979년 해인사로 출가. 1980~1988년 벽송사, 봉암사, 공림사, 성전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 2011년 동국대학교에서 「선문답을 통한 수행법연구」로 박사학위 받음.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여래장사상을 연구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여래장사상의 완결서!!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 이평래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1.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
2.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
3.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4.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유마경과 이상향
불교의 핵심 · 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 놓았다.
■ 화공 강의 | 60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선의 어록 禪
중요한 선어록과 선 경전禪經典의 친절한 해설서!!
禪의 주요 경전인 수행도지경, 좌선삼매경, 유마경 등 16종과
중국 선어록의 핵심 임제록, 마조어록, 벽암록 등 30종과
한국의 선어록 26종을 망라하여 완벽 해설!
■ 김호귀 지음 | 336쪽 | 18,000원 | 신국판 양장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